

LG디스플레이,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

2010년 온실가스 감축시설 가동 ... 구미 6공장에 85억원 투입 계획

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LCD(Liquid Crystal Display) 분야의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섰다.

LG디스플레이는 6월9일 LG전자 구미러닝센터에서 구미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.

LG디스플레이는 공청회에서 12월까지 구미 6공장에 85억원을 들여 LCD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육불화황(SF₆)을 감축하는 시설을 구축해 시험운전하고 2010년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육불화황은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아산화질소(N₂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와 함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6개 온실가스 중 하나다.

LG디스플레이는 육불화황을 태우는 저감공정을 통해 90-95%의 육불화황을 분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또 2010년부터 육불화황 저감장치를 가동하면 국내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0.1%에 해당하는 연간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“구미 6공장에 우선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공장에도 도입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10>